

전주에 뜬 태극전사 팬들 호텔 습격사건

Talk Talk 사커 유쾌한 뒷담화

회갑연 하객들과 같은 식당 쓰기

●...대표팀이 극성팬들로 몸살을 앓았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전주를 방문한 대표팀은 한 특급 호텔에 머물고 있는데, 대표팀과 같은 특급 스타들이 머문 경험이 적은 탓인지 호텔 측의 세심한 배려가 아쉬움을 남겼는데, 특히 일반인의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극성팬들이 호텔 안까지 들어오기도 했다고 하네요. 선수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려고 하는데 팬들이 앞에서 진을 치고 있어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5일에는 이 호텔에서 회갑연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하객들은 점심 식사를 하는 대표팀과 같은 식당을 쓰는 영광(?)도 누렸다고 하네요.

조감독 전술 실현에 선수들 깜짝

●...‘반화축구’로 불렸던 조광래 감독의 축구가 그라운드에서 실현되면서 태극전사들도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조 감독이 원하는 전술이 선수들이 생각하기에도 구현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세르비아전에서는 달랐습니다. 세밀한 짧은 패스가 가능했고, 경기력도 매우 좋았습니다. 선수들이 조 감독이 원하는 스타일을 어느 정도 이해했고, 이를 그라운드에서 펼쳐냈다는 겁니다. 홍정호는 “아직은 부족하지만 감독님이 항상 말하는 바르셀로나나 맨유 같은 경기력을 선보이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세르비아전을 통해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승부조작’에 연맹 직원들도 피곤

●...승부조작 사건이 터진 이후 각 구단들과 함께 프로축구연맹 직원들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K리그 전체 워크숍을 짧은 시간의 준비로 치러졌고, 승부조작사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연맹 규정을 재정비 하느라 연맹 사무실은 지난 2주간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차에다 와이셔츠를 가져다 놓는 등 집에 들어가지 못할 상황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연맹 직원들은 수면 부족과 각종 업무로 인해 지쳐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팬들과 여론의 질타도 받고 있으니 이래저



래 힘든 시절입니다.

최효진 ‘군사훈련’ 때문에 골머리

●...최효진이 작년 12월 기초 군사훈련 없이 상무에 입대한 대가를 호되게 치르고 있습니다. 당초 최효진은 26일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인터벌 열정 출신 서유란 씨와 웨딩마치를 올리려 했는데, 하지만 결혼을 발표한 직후 부대에서 “24일 훈련소에 입소하라”는 소식을 접했죠. 부랴부랴 혼인식을 일주일 빠른 19일로 앞당겼지만 최근 상무 측이 기존 방침을 바꿔 올 시즌 종료 이후 입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최효진은 꽤 머쓱한 상황이 됐습니다. 지인들에게 죄다 19일로 알렸으니 결혼은 하겠지만 미뤄질지 모를 군사훈련은 어떻게 하죠? 현재 최효진의 공식 계급은 일병. 나중에 상병 계급장을 달고 집총 교육부터 다시 해야 할 텐데, 1월 카타르 아시안컵 차출로 군사훈련을 한 번 미룬 게 제대로 끝지를 썩고 있네요.

25일 상무 선수들 복장 이벤트?

●...“한 번쯤 우리도 복장 이벤트 좀 해야 할 텐데.” 뛰어난 패션 감각을 자랑하는 상무 상무 이수철 감독의 의미심장한 발언입니다. 주말 대구와 K리그 원정전에서 이 감독의 패션은 남달랐죠. 흰색 와이셔츠에 물 빠진 정바지, 명품 선글라스는 꽤 잘 어울렸습니다. 현대, 이 감독은 소박한 트레이닝복 차림의 선수단 패션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군팀이어서 복장 착용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 감독은 선수들에게 특정일을 기념하기 위해 전투화에 전투복을 입히기로 결정했습니다. 솔직히 부산 선수단이 입는 양복을 가장 부러워하던 이 감독이었는데, “6월6일 현충일이 (군복 입기) 딱 좋았다”며 아쉬워하던 그는 6월25일 전복전 때 선수들에게 군복을 입혀 소속감과 신념 의식을 확실히 불어넣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과연 상무 선수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스포츠 2부 축구팀



신지애가 6일 M.LPGA투어 솔라이트 클래식 최종 3라운드 17번홀에서 버디 퍼트를 성공시킨 뒤 환하게 웃고 있다. 갤러리(메이 뉴저지주) | AFP연합뉴스

아! 신지애...1타차 준우승

■솔라이트 LPGA 클래식

역전 노렸지만 린시킴 벽에 막혀 시력 수술 뒤 준우승 두번 상승세

신지애(23·미래에셋)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솔라이트 LPGA 클래식에서 준우승에 머물렀다. 신지애는 6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갤러웨이 돌체 시류 골프장(파 71·6150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3라운드에서 5언더파 66타를 치며 역전 우승을 노렸지만, 브리티니 린시킴(미국)의 벽에 막혔다. 린시킴은 이날 5타(11언더파 202타)를 줄이면서 결국 1타차(10언더파 203타)로 신지애와 크리스티 커(미국)를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하지만 신지애는 3월 기아클래식에 이어 올 시즌 두 번째로 준우승을 거둬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신지애는 지난 시즌을 마친 뒤 시력 교정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적응이 쉽지 않았다. 특히 가장 예민한 퍼트가 말을 듣지 않았다. 톱 프로들의 경우 퍼트 감각이 경기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퍼트가 잘 돼야 전체적인 경기 운영과 샷이 안정되기 때문이다. 준우승이 아쉬울 법도 하지만 신지애는 “지난 2개 대회에서는 우승권에 가지 못했지만 이제는 샷 감각이 살아났다”며 “특히 린시킴이 18번홀에 친 어프로치샷은 정말 훌륭했다”고 상대 선수를 칭찬하는 여유를 보였다. 그는 또한 “시력 교정 수술을 받은

뒤 걱정해 주시는 분이 많은데 서서히 적응해 가고 있다”며 “다음 대회에서는 팬들에게 꼭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릴겠다”고 덧붙였다.

신지애는 안경을 벗고 라운드를 하면서 어색해진 퍼트 감각을 회복하기 위해 하루 5~6시간을 퍼트 연습에 몰두했다. 그 덕분에 서서히 본래의 퍼트 감각이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최종라운드 14번홀(파4)과 15번홀(파3)에서도 1m 이내의 짧은 파퍼트를 놓치며 우승을 다음 대회로 미뤘지만 ‘파이널 킨’의 명성을 회복할 날이 머지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회였다.

한편, 김인경(23·하나금융)은 최종합계 8언더파 205타로 공동 5위를 기록했고, 재미교포 민디 김(22)은 6언더파 207타를 쳐 공동 8위에 올랐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serenowon

최경주 메모리얼 토너먼트 22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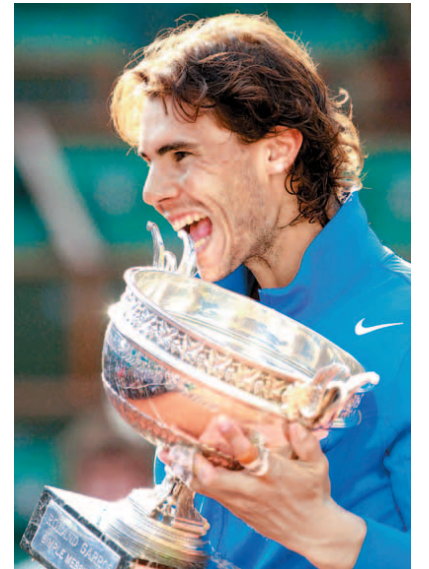
랭크 최경주(41·SK텔레콤)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메모리얼 토너먼트에서 공동 22위를 기록했다. 최경주는 6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더블린의 뮤어필드 빌리지 골프장(파 72·7265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1개로 4언더파 68타를 쳐 최종합계 4언더파 284타를 기록해 전날보다 순위가 21계단 끌어올리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위창수(39·테일레메이드)는 최종합계 4오버파 292타로 공동 63위에 그쳤다.

나달, 프랑스오픈 6번째 정상

라파엘 나달(스페인)이 프랑스오픈 테니스(총상금 1752만 유로) 남자단식에서 통산 6번째 정상을 밟았다.

나달은 6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스타드 롤랑가르에서 열린 대회 최종일 남자단식 결승에서 라이벌 로저 페더러(스위스)를 3-1로 몰리치고 대회 2년 연속 챔피언에 올랐다. 우승 상금은 120만 유로(18억8000만 원). 이로써 나달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연패에 이어 이 대회 단식에서 6차례나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는 기록을 누렸다. 6회 우승은 비온 보리(스웨덴)와 어깨를 나란히 한 최다 우승 타이 기록이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yoshike3



라파엘 나달(스페인)이 프랑스 파리 롤랑가르 스타드에서 열린 프랑스오픈테니스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라이벌 로저 페더러(스위스)를 몰리치고 우승한 뒤 트로피를 깨물며 기뻐하고 있다. 파리(프랑스) | 로이터연합뉴스

행복한 부부생활의 필수!

20대의 강력한 힘! “뉴 맨”!



개발자 서영숙 본사총괄 이사
14일간 사용해보고
이유 없이 반품, 환불

1588-3346, 010-8020-3346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www.newm.kr / www.ktoy.kr

고개 숙인 남성! 그리고 꿈!

마음만 먹으면 20대 때 보다 더 강하고 단단해져서 오래도록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건 모든 남성의 꿈이자 소망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감각도가 약해지고 자주 시드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자신감도 줄어들어 고개 숙인 남자, 고개 숙인 가장으로 변해갑니다.

“뉴 맨” 국내최초 3개 부문 발명특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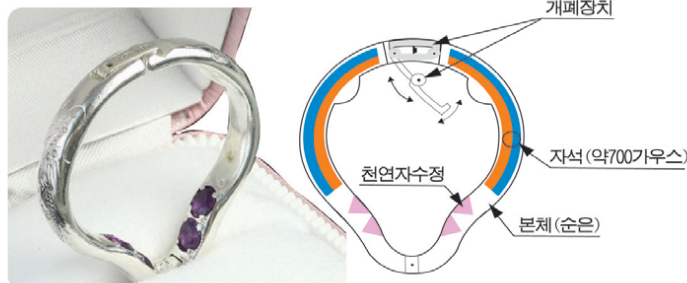
㈜케이엔제이 스포츠가 개발한 ‘뉴 맨’은, 남성음경해면체로 최대치의 혈액을 빠르게 유입시키면서 행위 시 음경외피의 신경자극을 완화, 더 크고 강한 발기와 시간을 연장시키는 효능으로 특허청에서 3개 부문발명특허(제10-0756243호)를 획득하였습니다.

남자! 그리고 자신감!

출시 7년에 국내고객 30만 돌파, 일본, 중국, 지사 설립, 전 세계 20여개국 판매!
이제 한국과 전 세계 수십만의 남성이 ‘뉴 맨’과 함께 자신감 넘치는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당당한 남자의 힘! ‘뉴 맨’입니다.

“망설이는 시간만큼 손해입니다”

설마? 정말? 하는 마음에 망설이십니까? 정말입니다. 강한 남자의 꿈! 소망! 결정하시면 이루어집니다.



디자인과 설계, 은 이온(Ag+)의 전기적 부하, 700가우스의 자기장, 천연자수정의 원적외선효과 등, 의학과 과학이 접목된 발명특허의 기술과 효능은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중국지사 T. 0433-286-5031 지사장 권대근
일본지사 T. 03-6278-9461 지사장 호시 고우지

※ 일본, 중국 등 현지구매는 지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NAVER에서 뉴맨 을 검색하세요
D+M에서 뉴맨 을 검색하세요

문의 112 10-0756243 호
본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평상시 사이즈	뉴맨 사이즈
6.5이하	주문제작
6.5cm	1호
6.75cm	2호
7cm	3호
7.5cm	4호
7.75cm	5호
8cm	6호
8.25cm	7호
8.5cm	8호
8.75cm	9호
9cm	10호
9.25cm	11호
9.5cm	12호
9.75cm	13호
10cm	14호
10.25cm	15호
10.5cm	16호
10.75cm	17호
11cm	18호
11.25cm	19호
11.5cm	20호
11.75cm	21호
12cm	22호
12.25cm	23호
12.5cm	24호
12.75cm	25호
13cm	26호
13.25cm	27호
13.5cm	28호
13.75cm	29호
14cm	30호
14.25cm	31호
14.5cm	32호
14.75cm	33호
15cm	34호
15.25cm	35호
15.5cm	36호
15.75cm	37호
16cm	38호
16이상	주문제작

장안의 화제! 무엇이 쓰는 “물건” 인고?



백문이 불여일견! 사용즉시 볼품 있어서 크기도 마음대로, 시간도 내 맘대로 지속되는 품인지 생인지 청춘으로 돌아간 듯 자신감이 충전하다. 성생활의 자신감을 잃었거나 포기하신 분들께 강력히 추천하고 싶은 2011년 최고의 히트상품이다.

힘차고! 활력있게! ‘그린밸리’

기력이 약해진 40대부터 70대까지 근본적으로 힘이 세지고 당당해짐으로 복용하신 분이 다시 찾는 미국 직수입품입니다.

식약청 심사기준 통과 미국직수입품!



여성용

난생처음 느껴보는 여자의 환희!

미국 FDA가 인증하고 식약청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 미국 직수입품 먹는 성생활개선에 ‘핑크밸리’! 훨씬 강해진 수축력, 남쳐흐르는 뜨거운 샘물! 난생처음 느끼는 사랑의 오르가즘! ‘핑크밸리’를 만난 당신! 이제 밤의 요부입니다.

1577-0139, 010-7533-3346